

SUNBO NEWS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6년 10월 15일

vol. 153

주요소식

산업혁신운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협력사 간 동반성장의 대표모델로 인정받아



우리 회사는 9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모기업상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산업혁신운동은 2013년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시작돼 2차·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범 경제계 차원의 운동이다. 공장새마을 운동(1.0)의 자조 정신을 계승하고,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산업혁신 활동(2.0)을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3.0)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경영성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혁신운동 3차년도에는 총 2,014개 기업이 참여했고, 산업혁신운동 성과보고대회에서는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낸 61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1차 협력사로서 안주하지 않고 회사가 축적한 경험과 생산 노하우를 2, 3차 협력사와 공유하며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캠페인 및 기술 전수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혁신운동 1차년도부터 매년 5개 이상 2, 3차 협력사를 참여시킨 1차 협력사로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유일하다.

우리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협력사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혁신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성공사례 공유 및 자체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에서는 참여기업 모두 개선율 평균 75%, 목표달성률 평균 131% 이상의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산업혁신 운동에 참여한 우리 회사 협력사 중 (주)태성엔지니어링과 밸브테크코리아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함께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우리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함에 따라 선박용 모듈 유니트 전문 생산회사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립 30년 만에 3개의 법인과 8개의 공장을 가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생산 회사임을 입증받은 셈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끝없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라며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생산 환경을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문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방문

부·울 기능인 간담회 개최 예비 기능인력 양성 등 심도깊은 논의



10월 5일 우리 회사 본사에서 부·울 기능인 정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능인 5명이 참석했다.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성 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예비 기능인력 양성 등 한국 기술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었고, "진정한 기능인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기술로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지로 부산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기능인력 육성 및 기술저변 확대에 힘써오고 있다.

방문

정덕민 주한 인도 명예총영사 당사 방문, 상호협력 확인



9월 19일 정덕민 주한 인도 명예총영사가 우리 회사를 찾았다. 정덕민 명예총영사는 본사 공장 투어 및 홍보관 관람을 마치고, 의전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우리 회사의 기업 소개를 경청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의 선박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회사를 방문한 정덕민 명예총영사는 한-인도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부산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이자 교육인으로서, 향후 부산·경남 지역과 인도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회사 역시 부산·경남 지역과 인도 간 선박 산업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납품소식

HN, 2450 Compressor PKG 성공적인 납품으로 수주 사(社)와 탄탄한 신뢰 구축



우리 회사는 Burckhardt Compression(버카드 콤프레션)사(社)에서 수주 받은 HN,2450 Compressor PKG를 9월 28일 DSME(대우조선해양)에 성공적으로 납품 완료했다. Burckhardt Compression(버카드 콤프레션)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1844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이다. 주력 생산품인 왕복 진동 압축기는 해양 플랜트 및 가스 운반선의 필수 장비로 해외 8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LNG·LP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분야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납품된 Compressor PKG는 DSME에서 건조 중인 LNG Carrier에 장착되는 것으로, LNG선(LNG carrier)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선박이다. LNG선은 LNG의 증발가스(BOG; Boil off Gas)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때 BOG 처리의 핵심설비가 바로 Compressor다. Compressor는 냉매가 낮은 압력의 기체로 변한 것을 높은 압력의 기체로 변환시켜 다시 응축기로 전달하는 엔진 가동의 필수요소이다. BOG는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한 충분한 양이 만들어질 경우

Compressor를 거쳐 엔진 연료로 사용되고, 엔진에 필요한 연료보다 BOG 생성이 많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액화를 통해 가스 저장 탱크로 보내진다.

우리 회사는 총 12개 호선에 장착될 Compressor PKG를 수주받아 지난 7~8월에 걸쳐 2449호선과 2451호선에 장착될 Compressor PKG를 납품 완료하고, 10월 중 납품될 2452, 2447, 2448 등 3개 호선의 Compressor PKG를 제작 중이다.

사내복지

추석 연휴 후 직원 격려 행사 출근길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



추석 연휴를 보낸 후 9월 19일 출근하는 선보인들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최금식 대표이사과 임원진이다. 최금식 대표이사 이하 공장장 및 임원진들은 각 공장 입구에 나와 긴 연휴를 끝내고 출근하는 선보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우리 회사는 명절 연휴를 끝내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직원 격려의 날'을 명절 때마다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임직원이 선보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새해맞이 인사를 전하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최금식 대표이사는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회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석 연휴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남은 하반기 업무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

수요 아침 특강, 직원들의 호응도 UP!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요 아침특강'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9월 21일에는 구평공장에서는 '직장인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아침 특강이 진행되었다. 구평공장 임직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및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미소, 칭찬, 배려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직장인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강의는 지난달 다대1공장에서도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9월 28일에는 다대1공장에서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교육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은 IN교육전략연구원에 재직 중인 전미란 대표가 진행하여, 인간관계 및 조직 내에서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통의 효과와 대화의 기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강의한 강사만큼 임직원들의 호응도 또한 높았다. 참여한 수강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대화방식의 문제점, 동료 간 소통과 격려가 업무 결과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 시청각 자료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회공헌

재단법인 선보등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명예의 전당' 등재

9월 8일 재단법인 선보등대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다. 선보등대는 2013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해외 빈곤국가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저개발국 어린이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선보등대는 빈곤국가에 속하는 아프리카(남수단)와 티베트의 소외된 지역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월드비전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해외 빈곤국가 학교 짓기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2013년 티베트, 2014년 우간다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नेपाल에 3곳의 학교가 설립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억 원 이상 고액후원자 및 30년 장기후원자를 매년 선정하여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외 학교 짓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보등대가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위촉되었다.



사내복지

부산시 주최 토크콘서트 '여기 살자, 부산 토크콘서트' 참석



우리 회사 임·직원은 9월 28일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부 2층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여성뉴스가 주관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여기女氣 살자, 부산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기女氣 살자, 부산토크콘서트>는 '부산이 좋다, 사람이 좋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늦은 결혼과 일자리를 이유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 일자리를 찾아 역외로 유출되는 인구문제 등 당면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참가자들이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크쇼는 1부 '글로벌 부산'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방송인 로라 맥러키 부부와 부산남자에 반해 결혼한 중국댁 장리 부부의 부산살이를 나누고, 2부에서는 우리 회사의 김광수, 박경은 부부가 패널로 참석하여 새내기 부부의 출산양육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이날 토크쇼에는 부산 시장의 부인인 권순진씨,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산여성계 인사들과 문현금융단지내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입주 공기업 금융기관 등 직장인과 가족친화기업 워킹맘 워킹대디를 비롯, 대학생, 청소년, 맘카페 회원,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을 소재로 다채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했다.

회사소식

PI(Process Innovation)로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박차



PI의 취지를 설명 중인 최금식 대표이사

지난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프로세스 개선활동이 우리 회사와 협력사 간의 동반성장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주·입고 프로세스 개선과 더불어 ERP 시스템 수정·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구매, 생산, 품질 프로세스는 협력사와의 업무 연계가 유기적이지 않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 우리 회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업무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업무 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사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정 진도 파악이 쉬워졌고, 협력사의 로드울 파악도 용이해졌다. 협력사 역시 서류업무를 위한 외근을 줄일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경영지표 개선을 목표로 전 부문에 걸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

지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요령을 익혀두자.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 1분 정도 땅이 강하게 흔들린다. 이럴 때 밖으로 나가면 떨어지는 낙하물이나 파편에 부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멈춘 후 행동해야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 안에 있다면

- 지진의 흔들림이 심할 경우 현관문이나 창문이 찌그러져 잘 열리지 않아 실내에 갇힐 수 있다. 흔들리고 있을 때 침착하게 문이나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자.
- 방석이나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책상, 침대, 이불 아래로 피신하자. 주방에는 깨지기 쉬운 조리용 도구가 많아 다칠 위험이 크고, 가스폭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콘크리트 건물 위주인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대피하는 것이 건물 내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화장실은 건물구조상 배수관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방보다 벽이 튼튼하고 무엇보다 고립되었을 때 물이 있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화장실 문은 열어둘 것.

건물 밖에 있다면

-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최대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단, 아파트가 밀집된 운동장이나 1층, 지하 주차시설이 있는 건물 등의 공터는 붕괴로 매몰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 여의치 않다면 큰 나무 아래가 좋는데, 뿌리가 깊어 땅이 갈라지더라도 피해가 작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흔들림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내려서 계단으로 대피하자.
-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한다.

차 안에 있다면

-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속력을 올리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감속하자.
-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 도로의 흔들림이 심해질 경우 긴급차량 통행 시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키(스마트 키)는 꽂아두고 귀중품 등을 챙긴 뒤 대피한다. 이때 문을 잠그지 말고 연락처를 남겨둔다.
-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손잡이를 꼭 붙잡고, 최대한 몸을 낮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앉아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 뒤 허리부터 발까지 힘을 준다.

비상상황을 대비한 지진 가방을 준비해보자

<지진 가방에 들어갈 내용물> 생수, 비상식량(레토르트), 통조림 따개, 구급약, 휴지, 물티슈, 수건, 생리용품, 여벌 옷, 장갑, 마스크, 담요, 호루라기, 현금, 적금통장, 인감,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건전지, 라이터, 양초, 나이프, 신문지, 비닐봉지 등.

지진 가방은 현관문 옆에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 교환 및 교체가 필요한 내용물은 점검해 두도록 한다.

사회공헌

우리 회사와 대학생 홍보단 '로그인팀' 지역 어르신 급식 봉사 나서



우리 회사는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주최한 기업&청년 컴패니언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보협력을 맺고 있는 대학생 홍보단 로그인팀과 함께 9월 27일 급식봉사활동에 나섰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 회사 임직원과 로그인팀의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았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준비해온 떡과 후원금도 전달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로그인팀은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총무안전팀 전만석 대리, 김태훈 사원, HRD팀 고연주 주임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며, "선보공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해보니 지역민을 향한 배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내복지

음악회 '향연'을 보며 가을 정취 만끽



우리 회사 임직원은 9월 27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쇼지 사야카, 걸크러쉬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연주하는 음악회 '향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소나타 연주곡 4곡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적인 연주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다. 선보인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며 작은 힐링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우리 회사는 선보가족들이 일과 삶의

질적 만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내복지

2016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火, 和 - 바람을 만나다' 공연 관람



10월 3일 선보가족들이 부산 국립국악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정신혜무용단 '火, 和-바람을 만나다' 공연을 관람하였다.

흠에 잠기다 / 바람을 만나다 / 불에 눕다 등 총 3장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특히 그 내용이 기업들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공연을 관람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각기 다른 성질들이 만나는 결합, 즉 융합에 대한 이

미지 작업을 통해 조화 속에서 탄생되는 또 하나의 생성에 관한 화두를 표현하는 공연으로 국가적 화두였던 '창조와 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한 선보가족들 역시 공연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러한 공연을 자주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김윤주(10.01) 조철민(10.01)
신진환(10.04) 정덕희(10.04)
조종환(10.05) 황보석규(10.05)
어경철(10.06) 한승진(10.07)
권순현(10.07) 이석형(10.08)
조영록(10.10) 권상익(10.12)
김상민(10.13) 이재연(10.19)
이창호(10.19) 알 빈(10.21)
반 던(10.21) 윤희동(10.22)
신광식(10.22) 문중현(10.23)
하 김(10.28) 김희태(10.28)
- ☑ **구평공장** 이도현(10.03) 슈마리케(10.06)
방영봉(10.06) 안석영(10.08)
남기추(10.12) 구우현(10.16)
현재구(10.16) 윤치호(10.16)
노만석(10.17) 하경원(10.18)
박상철(10.19) 공의희(10.20)
박세훈(10.23) 장길한(10.24)
안세현(10.24) 조 안(10.26)
장정현(10.27) 최동식(10.28)
김서홍(10.30)
- ☑ **영도공장** 권정현(10.03) 이호진(10.05)
이행수(10.06) 데니스(10.09)
김양무(10.10) 오영준(10.11)
교 념(10.12) 하윤철(10.15)
서회운(10.19) 문용수(10.19)
김미화(10.22) 옥영철(10.23)
류지창(10.23) 윤정아(10.25)
양상구(10.27) 김영수(10.30)
- ☑ **군산공장** 정성훈(10.17) 사 둔(10.27)
- ☑ **영암공장** 정봉주(10.16) 전성열(10.19)
서정호(10.21)

양사 기념일

- ☑ **본사** 박홍준(10.01) 장호길(10.01)
지기환(10.01) 조철민(10.01)
이영우(10.01) 공성문(10.04)
김희태(10.10) 진병석(10.10)
김숙정(10.11) 김태호(10.12)
장호신(10.12) 존 (10.15)
알 빈(10.15) 베네딕(10.15)
패트릭(10.15) 레이마크(10.15)
정상규(10.21) 장세렬(10.26)
- ☑ **군산공장** 박천수(10.07)
- ☑ **영암공장** 임재명(10.01) 문수빈(10.01)
방영봉(10.05) 김효희(10.06)
이규현(10.08) 서순일(10.09)
이충훈(10.13) 임우택(10.13)